



‘진심(眞心)의 리더’ 김영학 사장이 말하는 ‘공기업 이야기’

김영학의 감사래터

신(神)의 직장에는 정말 신(神)들이 살고 있을까?

‘전임자 책임이니 나는 현상유지만 하겠다’는 자세로 공기업 개혁은 요원하다. 과감한 원인치료에 나서는 ‘바보사장’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공공부문의 경쟁은 더 높은 자리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더 나은 성과’를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매일 듣는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모범생이 될 수 없다. 최소한의 감독으로 공기업에 자율과 책임을 함께 묻자. ‘스마트한 공공서비스’, 아젠 꿈이 아니다.

고령화 쇼크, 수출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수출에 일희일비하는’ 높은 대외 의존은 한국경제의 고질병(病)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수출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감소하는 국내 소비를 수출로 극복하지 못하면 산업 전반의 ‘쇼크’는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의 동거, 수출의 미래 ‘소프트스킬’에 있다

컨텐츠와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과 같은 ‘소프트스킬’이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이다. 이미 금융시장의 많은 일자리가 ‘시스템화된 의사결정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다. 로봇과의 동거, 이제는 현실이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의
공 기 업
현 장 에 세 이